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국조선족의 역할

The role of Chinese-Korean(Chosungok) for Forming the union
of Korean People



- I. 들어가는 말
- II. 한민족 공동체의 의미
- III.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 IV.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전략적인 위치
- V. 맺는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bstract】

Currently the Kim Dae Jung political power of South Korea,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more active, compares in other previous South Korea political powers. For example, The President Kim Dae Jung visits North Korea, the discrete family meets each 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trades between them on the economic side are active from Mt. Kum Gang sightseeing enterprise. Finally the flow like these, will be initial manure with the north and south unity which is a desire of the whole nation expects.

It is like that but it accomplishes the unity of Korea to respect, the gain and loss and coordination of north and south person concerned for do first of all thick. But, the coordination and interest of the circumference nations, when positive coordination of the overseas Korean races become accomplished, that it is possible, it sees.

Consequently from this writing from overseas Korean race wild middle specially the Chosungok which is the possibility of going against the role of the field it tried to observe a zone one effect in Korea unity. The Chosungok for a Korean race community composition the role of the field is a possibility of becoming accomplished from many field. It is like that but we are not become accomplished expect as actually. It acts more but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even the environment the such role will can be accomplished is not composed. This first, it forms the Korean race community it accomplishes the role for to, the Chosungok is a problem to form. The namely Chosungok the form is still to an undeveloped condition, also it cannot prepare the culture function it will be able to accomplish a such role it is because. There is a problem to second, South Korea form. Koreans who are living actually in Korea understand the overseas Koreans and the gun admirable step the some it wears out there is a tendency against a discrimination and scorn attitude. That there is a problem at culture strategy of Korea, the place where it is analyzed, it overcomes like this problems and leads a Korean Peninsula unity and the Chosungok for it augments the role of the field to respect, the positive support of Korea against the Chosungok sliced raw fish is necessary. Namely, the the field the society, is undergoing an economically many difficulty from China of the reforming flag. Consequently for the circumstance creation it will be able to form the Korean Peninsula community economy of Korea, the social support is necessary. The only, like this support means the fact that it is the possibility becoming the help in Chosungok conference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When the Chosungok the society of the field the economic position becomes stable, naturally the Chosungok the field to be accomplished a many role in trade name amicable relationship formation of Korea and China and. Like this grudge, the middle relationship development is thought finally zone one effect

going mad to the trade name amicable relationship advancement of North Korea and, finally becoming accomplished with the north and south unity which is a desire of all Koreans.

I.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문턱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민족에게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더욱 무거운 역사적인 과제가 차려졌는데 그것이 곧바로 우리민족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남북한의 분열을 매듭짓고 새로운 자세로 세계화의 조류와 합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이 아직까지도 분열이라는 비극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하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약소민족으로서 세계화 조류속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와 운명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그 의의는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민족공동체의 구상에는 우리민족을 세계에서의 강대 민족으로 부상시키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무궁한 발전을 꾀하는 의지가 다분히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어떠한 전략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가 하는데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며 또 실천과정에서의 부동한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즉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전제는 방법론적인 시각에서 그 목표에 대한 설정과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많은 학자들의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의논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한민족의 미래를 세계운명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히 연결시키는 측면에서의 목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전략적인 시각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연구에는 두 개의 뚜렷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많은 연구결과에는 한민족공동체를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민족 미래의 전략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지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이고 혈연주의적인 색채가 여전히 농후하며 또 모국중심주의적인 인식이 깊이 깔려있다. 한림대 성경룡교수는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건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각을 "①한반도 중심 사고:해외 한민족의 중요성, 인권, 안전, 복지, 활용가능성 무시, ②국가중심 사고:기업, 종교단체, NGO,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무시,③목적론적 사고:국가안보와 통일을 전제한 교류협력 모델, 통일모델 모색, ④혈연중심 사고:민족개념을 규정할 때 문화적 요소(언어, 관습 등)와 보편적 요소(시민권)를 도외시하고 과도하게 혈연중심적으로 접근"¹⁾ 등 네 개 측면으로 개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 번째와 네 번째 시각이다. 한민족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적이고 혈연주의적인 경향의 뚜렷한 표징은 한민족문화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은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배타적인 정서만 키워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사회의 문화를 이질화로 규정하고 또 그것을 배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따라서 나타나므로 하여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커다란 저애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공동체의 이해에 있어서의 한국중심주의 혹은 모국중심주의적인 인식의 주된 형식은 세계각지에 있는 해외교포사회의 주체성을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간에 부인하고 그들을 한국의 일부 구성부분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한민족공동체에 있어서의 지위를 한국이라는 핵을 위해 봉사만 해야되는 피동적인 입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서술에는 그것이 한반도에 줄 수 있는 거대한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해외교포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든 어떠한 방법으로 해외교포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

1 성경룡,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창립 기념 제1차 상설토론회 주제 발표문, 2000. 6.

다. 소위 해외교포사회를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며 외교관이라고 인식²⁾하는 자체가 해외교포사회는 어디까지나 한국이라는 모국을 위해 봉사만 해야하는 일꾼이라는 식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은 외면하고 이상주의적인 공담(空談)에만 집착하게 할 수 있으며 한민족공동체의 실천과 목표간의 분리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둘째, 한민족공동체의 기본적인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동(認同)할 수 있는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의 목표가 한민족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혹은 한민족 민족성을 보존하는 전제에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족문화의 순수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분명치 못하며 어떠한 시각에서 한민족의 공동체를 형성하겠는지 하는 전략도 거의 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의 목표는 세계문명공동체에서의 다른 민족과의 평등하고 우호적인 지위의 확보에 두어야 하며 그 구성원들의 민족문화 주체성을 보존하고 또 그것들의 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전제하에서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문화전략에 그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민족공동체의 구체적인 목표는 한민족 협력체의 문화적인 기반 형성과 세계에서확고한 위치 설정에 있다. 이러한 목표에 대한 접근의 전제는 세계각국의 교포사회의 문화적인 이중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한민족공동체내에서의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민족공동체란 어디까지나 그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한민족공동체내에서의 동등한 위치의 보장과 문화주체성에 대한 인정이 각자가 분담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한민족공동체란 우리민족의 미래발전의 틀을 제시하는 거대한 전략이기에 반드시 전략적인 시각에서 그 구성원들의 문화적인 성격과 기능을 인식하고 그의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의 기본적인 전략구도는 한반도 모체문화의 확산으로 세계각지에 널려있는 교포사회의 문화적인 동질성을 일정한 정도에서 보존하고, 그들의 변연문화(邊緣文化)³⁾의 성격을 크게 강화하여 한민족을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세계와 연결하는 전략적인 변연문화구역(邊緣文化區域)으로 만들어 한민족의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크게 부각시키는 우리민족의 문화협력체의 형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태의한민족의 의미』, 통일부 자료실, 1998.

3 변연문화(邊緣文化)란 필자가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인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념이다. 변연문화(邊緣文化)란 원문화(元文化)의 성격과 의부문화(依附文化)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또 두 개 이상의 문화체계의 융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화체계를 형성한 복합성적인 문화체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는 성격적으로 조선반도의 원문화(元文化)와 중국의(依附文化)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적이고 또 자체의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문화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변연문화(邊緣文化)체계이다. 변연문화(邊緣文化)는 특징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문화전환(文化轉換), 문화중개(文化中介), 문화창신(文化創新) 등 문화적 기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한 문화체계의 교류에서 특수한 역할을 감당한다. 중국조선족사회와 같은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은 그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하여 이러한 문화적 기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는데 중국과 한국간의 문화, 경제, 정치적인 교류에서 그 특유한 문화전환기능으로 중국과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체계를 연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경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계통의 교차점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것들을 연계하는 변연문화체계(邊緣文化體系)들을 변연문화구역(邊緣文化區域)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변연문화(邊緣文化)란 두 개 이상의 문화체계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문화체계이기에 세계의 각종 문화체계 속에 산재하고 있으며, 또 그의 특수한 기능으로 전세계를 연계하고 있기에 세계의 일체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연문화(邊緣文化), 변연문화구역(邊緣文化區域)의 개념과 문화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참조: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변연문화의 문화적기능과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우세',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자립과 문화전략',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논문집, 연변인민출판사, 2001.

한민족공동체의 핵심은 모체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한반도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민족의 민족성 즉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에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민족공동체의 기반은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민족성과 이익구도에 있기에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의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이상주의보다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작(操作)할 수 있는 이론이 더욱 중요하다. 한민족공동체가 현실적인 조작성(操作性)을 띠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구성원들의 부동한 문화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한민족공동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대관계의 구축에 대한 이론적인 조명이 필수적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학자들의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문화적인 동질성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또 문화적인 이질화에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그렇듯이 세계각지의 한인사회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의 순수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이질화현상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서구의 문화에 물젖어 있는 한국이나 다른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교포사회나 할 것 없이 문화적인 이질화는 현대문명의 필연적인 추세로 민족문화의 동질성으로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각종 이론에 난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문화적인 이질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인식해야 할까? 필자는 세계각지에 널려있는 교포사회의 문화를 한반도문화와 일치한 성격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인식 자체가 한민족공동체 구성의 논리적인 기반을 잃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민족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정한 정도에서의 민족동질성을 기반으로 더욱 강한 변연문화(邊緣文化)의 성격을 형성해야만 한민족공동체의 실천이 현실성을 띌 수 있다고 인정한다. 즉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문화이질화는 우리민족의 세계진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이므로 그것을 한민족공동체의 가장 보귀한 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의 실천에 있어서 다른 하나 극히 중요한 문제는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휩싸인 이상적인 공담의 틀에서 벗어나 한민족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이익구도를 제시함으로써 그들간 유대관계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호소는 거의 공담이나 다름없으므로 한반도와 세계각국 교포사회간의 이익구도를 명확히 제시해야만 민족적이고 혈연적인 유대관계도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각지의 교포사회는 한반도와 어떠한 이익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서로간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한민족공동체를 현실적으로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 동족간의 정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으나 그것을 현실적인 이익구도 속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상주의적인 빈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때는 동족간 불신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될 수 있다.⁴⁾ 만일 한반도와 세계각국의 교포사회사이에 밀접한 이익구도가 존재한다면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민족공동체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필자는 한민족공동체 건립의 전략은 한반도와 세계각국 교포사회의 긴밀한 이익구도로 그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해외교포사회를 한반도와 세계각국을 이어주는 문화적인 변연문화구역(邊緣文化區域)으로 부상시켜 우리민족의 세계화와

4 필자는 '민족의 경과 경계의 흐름'이라는 글에서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은 경계의 흐름과 민족의 경을 혼돈하여 이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인정하였다. 참조: 김강인, '민족의 경과 경계의 흐름', 『연변일보』, 2001. 2. 6.

정에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본문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중국조선족사회와 기타 한민족사회간의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민족공동체에서의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 그리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필수적인 문화전략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려한다.

II. 한민족 공동체의 의미

한민족공동체(Korean Community)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認同할 수 있는 정의가 없는 듯 하다. 많은 경우 한민족공동체의 함의에 대해 민족문화의 블록화, 경제적인 블록화 혹은 한민족의 세계에서의 위치 확보를 위한 협력체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로 인하여 혹은 경제적인 측면을, 혹은 문화적인 측면을, 혹은 협력관계를 더욱 강조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이광규교수는 한민족공동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족을 하나의 협력체로 이루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모두 잘 살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세계에 분산된 한민족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한민족공동체'라 하자"⁵⁾ 이광규교수는 또 한민족공동체를 세 개의 부류로 나누어 이해한다: "한민족공동체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고려할 때 세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남한과 북한을 합한 정치적인 한민족공동체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와 그 외각을 포함하는 한민족경제공동체이며, 다른 또 하나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한민족을 포함하는 한민족문화공동체이다."⁶⁾ 이교수는 한민족공동체를 세계 한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복합적인 협력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많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단지 한민족공동체를 세가지 차원으로 인식하고 경제와 문화를 분리시켜 고려하는데 대해 필자는 부동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각지에 있는 교포사회는 한반도와 문화적인 유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를 문화적이고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변연문화(邊緣文化)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단순한 문화적인 협력체로 이해한다면 그 기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적이고 혈연적인 측면으로만 이루어지는 협력체는 그 기능의 하락으로 인하여 강한 응집력을 형성할 수 없다. 즉 다른 문화체계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포사회의 문화가 강한 응집력을 형성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다른 문화체계에 동화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란 어디까지나 그 구성원들의 혈연, 문화, 경제 등 측면의 유대관계에서 형성해야만 강한 응집력을 지닐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한 세계와의 끊임없는 교류에서만 그 존재의 의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를 세계의 발달민족들과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동등한 위치의 확보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민족의 번영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체라고 규정하려 한다.

이러한 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는 유대는 물론 한민족의 민족성과 문화동질성에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이익구도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를 두고 말하면 세계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사회의 중요성은 그들이 한민족 일원이라는데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반도의 세계진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연문화(邊緣文化)를 형성하였기에 한민족 세계화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계각국의 교포사회를 두고 말하면 한민족공동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세계를 이어주는 중개계통(仲介系統)을 형성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

5 이광규, '한민족공동체와 민족문화', 해외한민족연구소(海外韓民族研究所)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榮體)』, 1999. 7. 94쪽

6 상계서, 97쪽

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필자가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구성원들간 이익구도를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보다 이러한 이익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민족공동체란 공담(空談)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은 그들간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이익구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또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피는 물보다 짙다"는 식의 몇 마디 구호로는 한민족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에 그들간 극대화한 이익구도의 형성에 주력해야만 가장 현실성을 지닌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민족공동체 성격에 대한 위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그것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두 개의 측면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를 핵심으로 한 한민족의 문화와 경제 블록화의 형성. 현시대에 들어서서 문화의 교류와 경제의 교류는 서로 전환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교류형태이고 또 가장 쉽게 교류 당사자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도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가 존재하는 조건은 우선 우리들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긴밀한 유대관계로 현실화시키는 지름길은 문화블록과 경제블록의 형성이다. 문화블록의 형성으로 한민족의 일체감 혹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경제블록의 형성으로 한민족공동체내 구성원간의 이익구도를 형성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를 한 개 유기체(有機體)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를 핵심으로 세계각국 교포사회의 완벽한 변연문화체계(邊緣文化體系)를 형성하고 세계의 다른 문화체계와의 효과적인 교류기제(交流機制)를 건립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에서의 한민족의 위치를 확보. 세계화과정이란 세계각국과 민족간의 효과적인 교류의 확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을 통한 교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장 적게 받고 교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전략적인 시각에서 元文化(한반도문화)--邊緣文化(교포사회문화)--異文化(세계각국의 문화) 교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연문화체계(邊緣文化體系)는 효율적인 정보선택, 문화전환, 문화창신 등 기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세계화과정에서 그 기능의 중요성은 두드러지고 있다. 한반도를 두고 말하면 세계각지의 교포사회는 경제와 인구유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로 투자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자원이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전략적인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와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완벽한 변연문화체계(邊緣文化體系)를 구축한다면 우리민족의 세계화과정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목표에 접근하려면 두 개 측면의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 하나는 한민족공동체는 이론적으로 정치적인 목표를 배제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의 통일 혹은 정치적인 공동체의 성격은 정치적인 통합이기에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란 주로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문화공동체와 대응하여 사용하는 개념인 것만큼 남북한의 통일은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한민족공동체의 총체적인 목표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민족 공동체란 주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민족사회의 블록화를 목표로 하기에 다른 민족사회와 국가간의 정치적인 충돌을 피면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정치적인 배경의 부동으로 인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체내에서의 위치와 작용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의 교포들은 그 귀속국의 정치적인 제도로 말미암아 2중 국적을 획득할 수 있기에 그들의 한민족 공동체내에서의 위치는 한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색채를 띠기 마련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인과 중국의 조선족인 경우 그 귀속국의 법률적인 규범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다민족국가이기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당연히 신경을 쓰게 되므로 자칫하면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많다. 우리들이 한민족 공동체를 구상할 때 그 목표를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블록화에 설정한다면 해외동포 거주국들의 정치제도와 법률을 존중해야하며 되도록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배제해야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세계강국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쟁탈하려는 전략적인 지역이므로 되도록 그들에게 분쟁의 이유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되면 우리민족에게는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국제적인 분쟁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자살적인 행위와 다름이 없으므로 한민족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주변국가들간의 정치적인 마찰을 회피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한민족공동체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내 각 구성원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한반도가 한민족공동체의 핵을 이루어야 함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세계각지의 교포사회를 한반도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한반도의 이익구도에 맞춰 이용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의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한 개 민족의 혈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나 한반도와 해외교포사회의 관계를 단순한 혈연적인 관계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해외교포사회는 타국의 국민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국을 지향하는 일면이 있으나 또 정치,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거주국에 귀속됨으로써 이중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는 한반도문화와 중국문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졌고 또 한반도문화와 중국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체계이기에 그 문화의 주체성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사회의 문화 주체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함은 그들의 한민족공동체내에서 동일민족으로서의 동등한 위치와 다른 국가 국민으로서 한반도 국민들과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보다 중요한 것은 모국중심주의와 우월주의는 사실상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역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보다시피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혈연주의는 모국중심주의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실제로 세계각국 교포사회의 문화를 이질화로 간주하고 배척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간략히 말하면 한민족공동체란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공존을 전제로 하는 한민족 공동의식의 구축, 한민족 경제, 문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각국과의 원활한 통로 개척, 세계화 시대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세계민족 속에서의 위치 확보 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 우리민족의 협력체라고 인식할 수 있다.

Ⅲ.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위의 분석에서 이미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혈연주의에 대한

여 언급을 하였다. 필자는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함에 있어서 그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사회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민족공동체 이론의 정립을 위해 현실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의 엄중성을 자각하면서도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자세이다⁷⁾.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은 우리들은 더 이상 혈연적인 유대관계에만 집착하여 서로간 관계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조선족인들이 모국 땅에서 느낀 모멸감과 이상주의적인 민족주의간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만일 우리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단순한 민족주의와 혈연주의로 우리민족의 일체감을 형성하려 한다면 시도하면 할수록 "감정이 메말랐다"는 식의 결론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⁸⁾.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혈연주의에 집착하였던 한국과 세계각국 교포사회간의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기타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문화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혈연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교포사회의 교류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교류에서 경험을 하다. 보다시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중국조선족사회의 대 한국진출의 기본적인 형태는 혈연적인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교류인데 정확한 문화전략의 결핍으로 인하여 중국조선족사회와 한국간의 교류는 점점 비뚤어진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눈물겨운 상봉이 서로간의 반목으로 이어지는 비극까지 초래하였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차원의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한다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공담에 집착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실과 이상주의적인 이론의 분리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7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학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많이 다루어 왔고 또 많은 제안을 하였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학술적인 논의는 논의대로 속수무책한 문제점들은 문제점대로 심각히 분리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들의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상적인 색채만 보여주고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실망감까지 심어주고 있다.

8 1999년 11월, 필자는 중국조선족인들의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경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방문 경력이 있는 조선족인 100명, 북한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조선족인 100명과 남북한을 방문한 경력이 없는 조선족인 100명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주로 한국사회의 환경과 생활여건에 만족하는 쪽으로 집중되나 한국인들과 한국친지들의 인격, 신용도, 자기들을 포용하는 자세,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인품이 후하고 겸이 있다'는 결론을 선택한 조사대상자는 1.3%밖에 차지하지 않아 '한국은 인격이 메마른 곳'이라는 식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조선족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점은 황승연교수의 조사결과와 일치성을 띠고 있다. 황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동포들 중 43%가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차별시키고 무시했다고, 또 69.3%가 노력한 만큼의 적절한 대우를 못 받고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2.8%가 일을 하고 보수를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받은 이러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가 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본 조사결과는 참조: 김강일, '연변조선족의 대남복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 고려대평화연구소 『평화연구』, 1999. 8호; 황승연,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대한민국 국회 21세기 동북아 연구회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과제』, 1996.

9 한국에 대한 중국조선족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김재국씨의 『한국은 없다』와 김문희씨의 『한국인들이여, 상놈이 되라』 등 책자들의 출간으로 고조될 이루었다. 한국에서도 경제적인 호풍은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중국조선족인들을 질책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그 대표작으로는 1993년 10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위경결혼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중국조선족인들에게 전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간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쌍방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조선족사회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경제적인 욕구가 많은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들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에는 아직도 많은 편견이 혼재하고 있어 한반도와 중국조선족사회간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역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에 한해서 몇 개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첫째, 한국정부나 한국국민들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에는 전략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피해의식으로 중국조선족사회를 배척하는 정서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즉 전략적인 시각에서 중국조선족사회를 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¹⁰⁾, 언론매체와 국민의식에는 중국조선족사회를 부담거리로 생각하거나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정서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이러한 인식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 중수교 이후의 대 중국진출에서 중국조선족사회가 100여 년간 축적해온 문화자원을 저렴한 대가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조선족인들의 대 한국진출에는 그렇다고 할만한 우혜정책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변조선족의 대 남북관에 대한 실증조사"에서 이미 논증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의 결여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사실 요즘 한국의 학계에서도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다룬 논문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종훈 국회입법분석관은 중국조선족사회와 한국간 교류에서의 문제점을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전략사고결여에 귀결하고 중국조선족사회가 한중관계, 한반도통일, 동북아지역경제권 형성 등에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영향을 분석한 바가 있다.¹¹⁾ 하지만 전체 한국사회와 국민들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모국중심주의와 우월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심각한 색안경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적 구상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하위정책의 결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을 전략부재의 나라라고 칭한다면 무리일 수도 있으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언론의 경향이거나 간에 소위 전략이라고 이를 수 있는 하위정책과 문화환경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얼핏 분석하여 보아도 중국조선족사회는 한국과 중국을 이어줄 수 있는 극히 중요한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거대한 전략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펴내지 못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중국조선족사회를 한국의 귀속부분으로 간주하고 그 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인정하며 중국조선족문화를 한국문화의 이질화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농후하다. 이러한 의식심층에 내재하고 있는 경향들은 물론 한국인들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우월감에서 형성되었지만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모국중심주의적인 배타주의에서 온다는데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부추겨주는 데는 한국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작성한 중국 조선족에 관한 자료를 보면 중국 조선족 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 규정했다. 이것은 중국 조선족의 한민족문화의 이질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무의식적인 배타의식의 발상이라고 할 수

10 예를 들면 한국정부의 중국조선족의 한국방문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계획은 중국조선족으로 하여금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 경인갑교수는 이에 대해 '다른 길은 다 차단시켜놓고 여자들이 시집가는 길만 열어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조: 경인갑, '한민족공동체와 재중동포', 해외한민족연구소(海外韓民族研究所),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榮體)』, 1999. 제7호.

11 참조: 이종훈 '재중동포정책의 현황과 향후방향', 대한민국 국회 21세기동북아연구회 동북아정책자료집1 『재외 동포정책의 방향과 과제』

있을 것이다.¹²⁾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가 한반도문화와 많은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한반도문화의 이질화라고 규정하는 것도 일정한 도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조선족문화의 모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문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조선족문화를 성격적으로 한반도문화의 하위문화로 규정하고 또 그 문화체계의 "이질화"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무의식적인 배타의식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문화전략 결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를 한국의 하위문화로 규정하고 있는 관념적인 기반은 그것을 한국의 귀속부분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인 성격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데 있다.

중국조선족사회를 한국의 한 개 귀속부분으로 간주한다고 함은 한반도와의 혈연적인 관계와 문화적인 동질성을 과대 평가하는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국민집단, 문화집단의 일정한 독립성을 부인하는 것을 가르킨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중국조선족사회는 혈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와 깊은 유대관계가 존재하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사회에 귀속되며 또 문화적으로도 중국문화와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기에 한반도의 귀속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중국조선족사회를 한반도에 귀속된 부분으로 간주한다면 혈연과 문화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은 무시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모국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겨 줄 것이다. 필자는 중국조선족의 지위에 대해 "중국국민으로서의 조선족, 중국경내에서 다른 민족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조선족, 한국과의 거래에서 주권국가국민으로서의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개 사회집단이라고 지적한바가 있다.¹³⁾ 이 문제가 보다 중요함은 한국은 중국조선족사회를 일방적인 이익구도에 맞춰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개 유대관계가 있는 독립적인 사회군체로 인식하고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거래에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므로써 그들이 중국이란 주권국가에서 모범적이고 잘 사는 민족으로 부상하는 것을 권장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을 방문하면서 민족문제와 영토문제를 무책임하게 의논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서는 모국중심주의적인 사유방식과 정확한 역사의식의 결여가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얼핏보면 그들의 정서는 중국조선족사회를 돕고 있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적으로 중국조선족사회의 문제점만 야기할 뿐 중국조선족사회에 아무런 적극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 "해외동포에 대한 이같은 모국의 사시적 인식은 그들 교포사회가 현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도, 그곳의 현지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일도, 그리고 교포사회의 보다 장기적인 단결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에도 방해로 작용하

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¹⁴⁾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인 특수성을 인식해야 하는 중요성은 그 사회문화체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한민족공동체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금 한국에는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를 한반도의 하위문화로 보고 그 이질성을 배제하려는 인식이 무리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사실 문화철학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를 한반도문화의 하위문화로 인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만한 도리가 없다. 중국조선족

12 이완우: '한민족공동체의 이데올로기' 『韓民族共榮體』 1999년 제7호 73쪽

13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참조

14 조경남: '혈연한 민족에서 벗어나라',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2000년 제4호, 5쪽

사회의 문화는 한반도문화와 중국문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졌고 또 성격적으로 한반도문화와 중국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체계이다. 필자가 변연문화(邊緣文化)라고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성격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에 귀속되는 문화도 아니며 중국에 귀속되는 문화도 아니라는 데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건 중국이건간에 모두 중국조선족 문화를 특수한 문화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화체계의 특징을 그 모체문화와 의부(依附)문화의 특징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을 정합(整合)하여 새로운 문화체계를 이루었으므로 본질적으로 한반도문화 혹은 중국문화와는 다르다. 이러한 문화체계가 한반도건 중국이건간에 모두 모방할 수도 없으며 전세계의 유일한 문화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뿐으로도 그것의 문화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중국조선족 사회 문화의 이러한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그 문화를 이질문화로 인식하며 그것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무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반도를 두고 말하면 중국조선족 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국문화의 성격은 이질적인 것임은 틀림없으나 이러한 이질화가 곧바로 그 사회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이며 또 한민족이 세계화 진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문화자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서강대 심현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을 단순한 남북의 대리인, 대리사회의 문화를 갖는다고 보면 안된다. 재외동포들은 남과 북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사회 이 3자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공동체들이다. 조선족은 중국의 문화가, 고려인은 슬라브, 이슬람의 문화가, 재일동포는 일본의 문화가 그리고 재미동포는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문화가 침투되어 형성된 독특한 종족문화공동체를 형성해왔다. 이러한 문화는 바로 조선반도통일이후의 우리의 문화가 복합한 다문화사회가 될것임을 예고한다."¹⁶⁾ 복합문화 혹은 변연문화(邊緣文化)의 성격은 결코 우리들이 배제해야할 성격인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일으킬 요소이므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언급해야할 문제는 한국인들의 해외동포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의 색안경효과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교포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질화 또는 하위문화라는 하는 식의 이해가 아니며 또 그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반면 러시아나 중국의 교포사회의 복합문화에 대해서는 한반도문화의 이질화 혹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고 그것들의 기능을 출시하거나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미국과 일본은 어디까지나 발달국이기에 그 문화자체도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숭배감이 깊은 반면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는 미발달국의 문화이므로 거의 무시하고 있는 배척감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해만큼 황당한 것은 없다. 그리고 미래 발전의 시각에서 생각하면 한민족의 세계화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고 또 빠른 속도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기에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는 의의는 미국과 일본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중국조선족이 지니고 있는 복합문화나 미국의 한인사회가 지니고 있는 복합문화나 모두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귀중한 문화자원이기에 그것을 아끼고 더욱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갈 자세를 갖추는 것이 건전한 전략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 경제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 상호간 신임도,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의식 등 측면에서 이루어졌기에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16 심현용, '남북동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연변일보, 2001.1.6.

는 별로 팔목할만한 성취는 없었다. 필자는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중 가장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부분은 중국조선족사회 복합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그것을 한국문화와 동등하고 평등한 문화군체로 존중하며 따라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필수적인 문화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마땅히 중국조선족사회를 포함한 해외교포사회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또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혈연주의와 민족주의는 논리적으로 중국조선족사회와 같은 해외교포사회를 한국의 귀속부분으로 간주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을 한국이라는 모국을 위해 봉사만 해야 하는 한국의 하위문화군체로 인정하는 부당한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에 한국과 해외교포사회의 건전한 유대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민족공동체의 바람직한 문화전략은 반드시 이러한 역적인 작용을 일으킬 요소들을 배제하고 한반도문화의 확산으로 우리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원들의 이익구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그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해외교포사회의 특수한 문화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임은 두말 할 것 없다.

IV.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전략적인 위치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세계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인구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사회가 중요함은 두말 할 것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민족공동체는 구상단계에 처해있고 또 중국조선족사회와 기타 교포사회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조선족사회와 한민족공동체간 관계를 논술하는 것은 논리적인 기반이 충족치 못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에서는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전략적인 위치를 분석하고 나아가서 한민족공동체의 한 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을 논하려 한다.

중국조선족사회의 중국과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필자의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¹⁶⁾에서 이미 논증한 바가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중국조선족사회 문화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중국간 교류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지위를 서술하였는데 그것들은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도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민족공동체에 있어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증은 논리적으로 중국조선족사회라는 문화집단의 기능이 어느 만큼 우리들이 설정한 한민족공동체의 목표와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분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조선족사회문화의 특수한 기능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어느 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바 본문에서는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의 기본적인 입장을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려 한다.

한민족공동체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술하였는데 그것을 한민족 문화, 경제의 블록화로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세계민족사회에서의 위치 확보로 개괄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사회가 기능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려면 민족정체성의 보존을 전제로 세계화과정에서의 중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떠

16 김강일주필,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

한 시각에서 민족정체성의 확보와 복합문화체계의 기능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조선족사회를 두고 말하면 그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자체가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는 거대한 기여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될수록 이 두 개 문제를 연결시켜 고려해야 그 문화적인 기능에 대한 해석도 논리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중국조선족사회와 같은 문화적 이중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교포사회를 분석할 때 "문화이질화"와 동화를 연결시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문화동질화"의 구축을 호소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위기의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화현상도 굉장히 많은 바 "문화동화론"에 대해 무작정 부정할 수도 없는 듯 하다. 예를 들면 조선족인구의 급격한 감소, 집거지의 소실, 대량의 인재유실, 혼인위기 등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명확히 인식해야 할 문제는 문화이질화가 동화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민족의 동화를 방지하는 대책이 문화동질화의 구축에만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중국조선족사회가 중국문화에 동화되고 그의 민족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도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이질화과정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민족의 동화와 문화이질화간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는 중국조선족사회가 동화가 되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경이 그의 문화이질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조선족사회가 민족문화의 순수성만 추구하고 이질화를 무작정 배제한다면 중국사회발전의 추세에 발맞출 수 없기에 결국은 문화파탄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문화이질화가 중국조선족사회를 동화의 위기에까지 몰고 갈 위험성도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모체문화의 존재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비관적인 결론만 얻을 것은 당연하다. 만일 우리에게 한반도라는 모체문화 배경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한반도가 경제, 문화, 정치 등 측면에서 강대하지 못하다면 중국조선족사회의 동화는 시간적인 문제일 뿐 논의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들에게 강대한 모국이라는 배경이 존재할 때 모국과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는 자연히 모국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기 마련이므로 결코 쉽게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조선족사회가 민족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될 위험성은 민족문화 순수성에 대한 고수 혹은 모국과의 교류 단절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의 동화를 방지하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민족문화 순수성의 구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민족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른 민족문화를 융합하여 생존의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모국과의 밀접한 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끈질긴 생명력은 중국사회에서의 위치 확보와 한반도와의 밀접한 교류에서 형성된다. 그럼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가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중국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모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닐 수 있을까? 필자는 그것이 바로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연문화(邊緣文化)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변연문화(邊緣文化)란 성격적으로 원문화(元文化)와 의부문화(依附文化)의 융합으로 형성되었기에 원문화체계(元文化體系)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의부문화(依附文化)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조선족사회의 경우, 한반도와 중국간의 관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배경이 존재하므로 그들을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문화전환(文化轉換)과 화중개(文化仲介)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에 민족문화의 정체성

17 예를 들면 계광현선생은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이질화의 현실을 '문화파탄'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계광현, '새천년에도 200만 조선족의 역사는 존속될수 있을까?', 료녕 『조선문보』 2000. 1. 1.참조

의 확보와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즉 중국조선족사회의 (邊緣文化)의 성격은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한민족공동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데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인 시각에서 보면 중국조선족사회의 중요성은 한반도와 중국간의 확장되고 있는 교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한반도와 거대한 이익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익구도는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를 有機的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관계의 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의 대 중국진출에 커다란 역할을 것이며 나아가서 한민족공동체의 세계화과정에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이익구도는 双向的이며 적어도 두 개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국조선족사회는 한반도문화와 중국문화를 융합한 邊緣文化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지리위치에 처해있으므로 한반도와 중국간의 교류에서 커다란 文化轉換과 仲介 역할을 놀 것이며 따라서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체계 자체도 생존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국조선족사회와 같은 이중성격을 지닌 문화체계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바가 있다. 경향적으로 그들의 분석은 그의 중개역할을 번역기능과 비슷하다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필자는 변연문화체계(邊緣文化體系)의 문화적 기능을 단순한 번역 기능을 훨씬 초과하는 문화전환과 중개 기능, 문화정신에 대한 판독과 선택 기능, 문화창신 기능 등으로 개괄하여 논술하였었다.¹⁸⁾ 보편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의 전파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문화중개계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보의 형성이 폭발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문화를 전환하고 중개하는 문화계통은 세계를 지구촌화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의 문화란 문화의 소유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 소유자가 문화교류에서의 망점(网点)을 형성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문화교류에서의 망점(网点)에 처해 있지 않는다면 그의 문화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이 바로 세계문화교류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일체화시키는 사회적 문화교류의 망점(网点)이다.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은 세계각지에 산재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그 역할은 더욱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각지에 5천 5백만이나 되는 해외화인사회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바로 중국과 세계를 연계하는 거대한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이다. 알다시피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했던 80년대부터 전략적으로 해외의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을 활용하였으며 그 전략적인 구상이 서서히 거대한 성공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이 점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한강기적"에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교포사회의 작용이 엄청났을 수 있는데 한국이 자각했던 자각하지 않았던 간에 한국을 국제화시대로 이끌어 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문화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사회가 미래의 한민족공동체에서의 역할이란 실질적으로 그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의 기능을 어느 만큼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반도를 두고 말하면 미래의 발전에 있어서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때혹적인 흡

18 김강일, '변연문화의 문화적기능과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 우세',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 전략』, 연변인민출판사, 2001. 참조

인력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래 한국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동북아시아의 국가들 중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보다도 더욱 큰 흡인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반도와 중국을 이어줄 수 있는 중국조선족사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변연문화(邊緣文化)의 기능으로 분석하면 200만이라는 중국조선족은 그 문화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시키고 그 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200만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문화중개집단과 마찬가지로이다. 필자가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이중성 혹은 변연문화성격(邊緣文化性格)이 우리민족에게 있어서는 더 없이 귀중한 문화자원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교포사회가 한반도의 대 미국, 일본, 러시아의 진출에서 거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중국조선족도 한반도의 대 중국진출에서 상응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한민족공동체의 세계화 목표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사실 해외교포사회는 별로 투자도 하지 않고 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자원의 소유자이므로 한국은 마땅히 그것들을 아끼고 또 상응한 전략을 펴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조선족사회의 변연문화성격(邊緣文化性格)에는 또 다른 변연문화계통(邊緣文化系統)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곧바로 사회주의적인 문화모식(文化模式)과 자본주의적인 문화모식(文化模式)의 융합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행한 20년은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자본주의의 적극적인 문화요소와 사회주의의 적극적인 문화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체계를 구축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조선족도 커다란 문화적인 진통을 겪었으며 또 사회주의적인 문화와 자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잘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즉 체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문화적 이질감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양극단에서 오는 부정적 측면을 이길 경험들을 축적해 오고 있다."¹⁹⁾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은 중국조선족사회가 미래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한다.

지금 한반도의 분열상태를 살펴보면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극단적인 이념대립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한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탈냉전이라는 느낌도 주고 있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화적인 대립은 결코 단순한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통일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는 데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남북한의 경제적인 격차와 문화적인 이질성의 해소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남북간의 상극을 이루고 있는 이념갈등을 해소하려면 남북한 당사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보다 빠른 도경으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곧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와 문화에 익숙한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중개계통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사회가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도경이 중국조선족사회와의 교류이다²⁰⁾.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은 자본주의적인

19 심현용·'남북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중국요녕 『조선문보』, 2000. 12. 29.

20 1996년부터 필자는 200여 명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사회의 여론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북한사회가 외부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도경은 대체로 출국한 공무인원, 무역인원, 방북 외국인, 중국경내에 탈출한 경력이 있는 북한주민 등이다. 그 중 중국으로 탈출한 경력이 있는 북한주민들이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을 형성한다. 북한 당국이 중국을 '황색바람 본거지'라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된다.

생활방식과 제도문화를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그것들을 가접수신호(可接受信號)로 전환하여 전달하고 있기에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별로 큰 장애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있다. 간단히 상상해 보기만 해도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만일 한국인들이 직접 자본주의적인 문화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한다면 주체사상에 물 젖어 있는 북한주민들의 거부감은 당연히 클 것이나 반면 사회주의의 문화에 익숙한 중국조선족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것들을 전달한다면 북한주민들은 별로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극단적인 폐쇄상태에 처해있는 북한사회를 두고 말하면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지속적인 의식변화가 없다면 그의 개혁과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개혁개방의 사상적인 전제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중국조선족사회를 통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서서히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북간의 문화적인 융합이라고 설정할 때 중국조선족사회의 융합된 체제 문화의 지속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가장 큰 현실성을 띠기 때문에 한국은 마땅히 중국조선족사회의 이러한 문화기능의 확장에 큰 주의력을 돌려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개혁개방을 실시한다면 중국조선족사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조선족사회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피부로 느꼈으며 개혁개방의 전제적인 조건, 실시단계,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등의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이 폐쇄상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바 돌발적인 사태를 회피하고 그로 하여금 점진적인 변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이론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조선족사회의 문화적인 기능은 한민족공동체의 세계화과정에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전략적인 시각에서 그것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국의 학자들도 이에 대해 많은 새로운 견해들을 제시하였지만 한국의 문제점은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껏 한국의 대 중국조선족에 대한 정책과 문제점 해소의 대안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한국에는 문화적인 전략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심까지 가지게 된다. 보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한국과 중국조선족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상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어떤 견해던간에 모두 민족의 정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그들의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뿐더러 서로간의 불신은 더욱 커져 만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에 우리들이 진정 실천성이 강한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하려면 아무런 쓸모 없는 빈말은 버리고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실천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V. 맺는 말

위에서 필자는 중국조선족사회의 한민족공동체에서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논술했는데 중국조선족사회도 그의 한계가 뚜렷이 나타난다는 시점에서 그것을 과대평가 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조선족사회는 아직까지 미발달상태에 처해있고 또 그 문화적 기능의 극대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중국조선족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기능에 대해서 거시적인 민족전략의 안목에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필자는 인정한다. 그러자면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한반도는 중국조선족사회와 기타 교포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시각을 형성해야 하며 또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문화체계를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유리한 측면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는 당연히 한반도를 핵으로 세계각국의 한민족사회를 그의 문화적인 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한반도는 더욱 높은 차원에서 해외교포사회를 이해해야 하며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력과 문화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의 국민의식은 아직까지 낙관할 정도는 아니다. 한국과 중국조선족사회의 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제시하다시피 한국국민들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태도는 母國優越主義에도 비롯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 전략적인 사유의 결핍에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반도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향해야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정한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지만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한반도가 세계각국에 널려있는 교포사회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무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어느정도 현실성을 띠고 있느냐 하는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조선족사회도 그의 문화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고 한민족공동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조선족사회가 한민족공동체에서 커다란 작용을 일으키려면 우선 거주국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아야 하고 따라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조선족사회가 잘 살지 못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민족공동체내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중국조선족사회는 변혁기의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인구, 거주지, 민족교육, 경제, 인재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기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를 현실적으로 구축하려면 한국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중국조선족사회의 자립과 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하지 그들의 발전에 저애력을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사유로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조선족사회의 이익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거의 없는 민족의식, 영토관념 등을 고취하려할 것이므로 오히려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역적인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세계화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으므로 중국조선족사회의 민족문제를 야기하여 그들의 우려심을 자아낼 도리는 없다고 보여진다. 하기에 한반도의 중국조선족사회에 대한 가장 전략적인 시각은 그들이 중국의 한 개 우수한 문화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경제적으로 부상시키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우리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를 구상함에 있어서 이상주의적인 공담은 버리고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민족발전의 문화전략을 펴냄으로써 우리민족이 더는 다른 강대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다른 발달 민족과 동등한 세계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